



No. 70

IIIRI Online Series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컬(global) 갈등관리와 한국의 선택

강 문 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2020. 7. 13



일민국제관계연구원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컬(glocal) 갈등관리와 한국의 선택



강 문 성 |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개별 국가마다 보유하고 있는 방역체제를 100% 가동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피로도가 쌓여만 가고, 경제활동 둔화로 인한 경제침체 역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생산체계 및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원활치 못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통신 및 운송 비용이 현저히 낮아지고 무역장벽 역시 낮아지자, 국경을 넘어 상품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세계화가 그동안 발전해왔다. 다국적 기업은 자국 내에서의 부품 및 소재를 조달하기보다는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에 공장을 세우고 여기서 부품 및 소재를 생산 공급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려는 ‘효율성 추구형 외국인직접투자 (efficiency-seeking FDI)’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해왔다. 개발도상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산업화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형태의 생산 및 공급 시스템을 파괴하였다.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 아래에서 글로벌 현상 및 현안은 국내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특정의 국내 상황은 글로벌 현상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처럼 세계성(globality)과 지역성(locality)이 결합된 갈등을 ‘글로벌(global) 갈등’으로 지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에서는 글로벌(global) 현상 및 현안이 특정의 국내(local) 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조달이 여의치 않아지자 한국 자동차 업계의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고 이는 다시 자동차 생산 공급의 지연, 소비자의 불만 발생, 자동차 업계의 수익성 악화에 이어 노사갈등까지 다양한 국내 문제를 초래한 바 있다.

글로벌 현상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보다 융합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국제질서가 어떠한 방향으로 재편되는지에 따라, 개별 국가는 현재 직면한 문제와 앞으로 새로이 나타날 문제를 국제적 시각과 개별 국가 차원의 지역적 시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는 ‘미-중 통상마찰’이라는 또 다른 변수와 연계되어 예기치 못한 문제를 한국에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로 붕괴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건하려는 명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이라는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등의 국가에 이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명목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가치사슬 체계를 수립하여 중국을 봉쇄(containment)하겠다는 것임을 미국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글로벌 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통상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온 한국으로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붕괴될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

서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효율성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추구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정책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글로벌(global) 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EPN 참여 요청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중 통상마찰은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이 이 고민의 핵심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과 정치체제의 민주화 등 관련 역사와 그 과정을 살펴볼 때, 한국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한국경제는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통상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장하였다. 또한, 한국은 군부독재에 맞서고 지역주의를 극복하면서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달성하였다. 최근 홍콩에서 나타난 혼란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더욱 명확해진다. 다만, 이러한 선택을 한국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과정에서 보다 전략적인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선택을 대내, 대외적으로 설득하고 이러한 선택으로 파생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끝/

저자 소개

강문성 교수는 미국 위스콘신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략적 무역정책, 다자무역체제, 자유무역협정, 외국인직접투자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등을 공동 집필하였고 "Export Subsid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An Entry-Deterrence Model under Complete and Incomplete Information", "Korea's Growth-Driven Trade Policies: Inclusive or Exclusive?"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mail: mkang@korea.ac.kr)